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EBS연계대리 교재

VOL1 틀리기 쉬운 유형편 1~2강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시그니처 (김현철)

E-AGERNES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AGERNESS

VOL1 틀리기 쉬운 유형편 1~2강

시그니처 (김현철)

01

글을 제대로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COMPREHENSION

1강 1번

음악의 기능

[Comment] 이 지문은 단순히 변형과 지문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수능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Paraphrasing, 즉 재진술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꼼꼼히 같이 읽어보되, '제가 같이 생각해보자'하는 지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수능 시험은 '내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지문에 대한 숙지로써 EBS 학습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It will never be possible to establish the origins of human music with any certainty; however, it seems probable that music developed from the prosodic exchanges between mother and infant which foster the bond between them. From this, it became a form of communication between adult human beings.

● 음악의 기원 자체가 어떠한 '확실성'을 가지고 성립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음악으로부터 엄마와 아이 사이의 운율적 대화가 발달하고, 그것이 그들 사이의 유대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으로부터 음악이라는 것은 어른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형태가 되었다. 음악이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한 가지 형태'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As the capacity for speech and conceptual thought developed, music became less important as a way of conveying information, but retained its significance as a way of communicating feelings and cementing bonds between individuals, especially in group situations.

● 말과 개념적 생각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써는 덜 중요해지게 되었지만, 기분과 개인들과 그룹 상황에서의 유대를 굳건하게 해주는데 있어서는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말이나, 개념적 생각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하니까, 정보전달의 능력에 있어서는 덜 중요해지고 있지만, 개인들과 집단간의 감정의 교류, 그리고 유대를 만드는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 이걸 여전히 앞 문장에 밑줄 쳐뒀던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으로써 음악이 역할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좋겠지!

[구문] Today, we are so accustomed to considering the response of the individual to music that we are liable to forget that, for most of its history, music has been predominantly a group activity.

● 오늘날, 우리는 음악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고려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의 역사동안 음악이 현저하게 그룹 활동이었다라는 것을 까먹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일단 음악이 집단적 활동이라는 점은 앞 문장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감정의 교류, 그리고 유대를 더 견고하게 하는데 있어서 음악이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언급했던 부분들에서 알 수 있었지! 앞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빈칸과 연결된다고 생각해도 좋아. EBS 월제의 정답은 색칠 된 a group activity 였어!

[구문] Music began by serving communal purposes, of which religious ritual and warfare are two examples. It has continued to be used as an accompaniment to collective activities; as an adjunct to social ceremonies and public occasions.

● 앞 문장에 대한 내용은 뒷 문장에서 더 명확한 어조로 이야기해주고 있어. 음악은 공동체적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시작되었고, 그 음악의 역할은 '종교적 관습과 교전'이 그 두 예시로 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즉 앞에 이야기했던대로 음악이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는거지. 이는 그 뒤에 It has continued to be used as an accompaniment to collective activities 에서도 다시 더 뚜렷하게 이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구문] (1) we are so accustomed to considering the response of the individual to music that we are liable to forget that, for most of its history, music has been predominantly a group activity.

●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so~that 구문이 위치하고 있다. that절 구문 내에 forget 다음에 나오고 있는 목적어절 that 뒤에 어순이 문장 삽입으로 인해 잠시 밀려져 있다라는 점도 눈 여겨 볼만 하다.

(2) Music began by serving communal purposes, of which religious ritual and warfare are two examples.

●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 (=whose)가 위치하였고, 이것의 선행사는 communal purposes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단어] establish 규명하다 / origin 기원 / exchange 대화 / foster 촉진하다, 발전시키다 / bond 유대, 인연 / convey 전달하다 / retain 유지하다 / cement 강화하다 / accustomed to ~에 익숙한 / liable to ~하기 쉬운 / predominantly 대개, 대부분 / warfare 전쟁 / collective 집단적인

[Comment] 이 지문은 도덕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역접의 Nevertheless 파트에서 이해를 절지만 않는다면, 글 자체는 무난하고 빈칸으로 원제에서 출제되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지문에서 빈칸으로 나오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순서등이 가능할 것 같은 지문입니다. 꼼꼼히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Ethics itself is not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description of the moral systems of different societies.

- 도덕 그 자체는 각기 다른 사회들의 도덕 체계를 묘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That task, which remains on the level of description, is one for anthropology or sociology. In contrast, ethics deals with the justification of moral principles (or with the impossibility of such a justification).

- 그 일, 그러니까 다른 사회들의 도덕체계를 묘사하는 그 일은, 묘사수준에 있는 것이고, 그건 인류학이나 사회학의 담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대조적으로 윤리는 도덕적 원칙들에 대한 정당화, 혹은 그러한 정당화의 불가능성을 다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즉 윤리의 진짜 목적은 도덕 체계를 묘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원칙을 정당화 하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윤리의 진정한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는거지!

Nevertheless, ethics must take note of the variations in moral systems, because it has often been claimed that this variety shows that morality is simply a matter of what is customary and that it thus is always relative to particular societies.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라는 것은 각각 도덕적 체계에서의 다름(변이들)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것이 도덕이 그저 관습적인 것들의 문제이고, 그래서 항상 특정 사회와 연관있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래. 즉 앞전에 이야기했던 각기 도덕체계가 다른 사회들의 특수성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거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네! 이 문장은 앞전에 얘기했던 논조와 조금 달라졌으므로 Nevertheless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According to this view, (=morality is simply a matter of what is customary~) no moral principle can be valid except in the societies in which it is held.

- 이러한 관점 (앞전에 이야기했었던 도덕체계가 다른 사회들의 특수성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도덕법칙이 그것을 보유한 사회속에서가 아니라면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결국 is always relative to particular societies 와 관련 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구문] Words such as *good* and *bad* just mean, it is claimed, "approved in my society" or "disapproved in my society," and so to search for an objective, or rationally justifiable, ethics is to search for what is, in fact, an illusion.

- 좋고 나쁘고와 같은 단어들은, 그저 ‘내 사회에서 용인이 되는 거야, 아냐 용인되지 않는 것이야’ 정도를 이야기할 뿐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윤리를 찾아가는 것은 그저 ‘환상’을 찾는 것 과 같대. 즉 결국 윤리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 가치를 다루는 것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구문] (1) Words such as *good* and *bad* just mean, it is claimed, "approved in my society" or "disapproved in my society," and so to search for an objective, or rationally justifiable, ethics is to search for what is, in fact, an illusion.

- it is claimed 가 삽입이 되었고, so 뒤에 to search for ~ ethics까지가 to부정사구가 주어로 쓰였다. 구조를 정확히 잡으면 좋겠다. .

[단어] ethics 윤리(학) primarily 주로 concerned with ~에 관심 있는 description 서술, 묘사, 기술(記述) anthropology 인류학 justification 정당성, 정당화 principle 원칙 take note of ~을 주목하다 variation 차이, 변화 customary 관습적인 valid 타당한 approved 인정된 objective 객관적인 illusion 환상

[Comment] 이 지문은 중간에 나오는 실험과 SNS상에 대해서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연계를 못시킨다면 독해가 힘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글이 나뉘면 나누어서 읽어야한다고 시그니처에서 제가 수백번 말했죠? 글 전체가 나뉠 수 있지만, 비슷한 2~3문장끼리도 문장별로 내용을 나눠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독해를 하면 좀 더 또렷하게 독해가 됩니다. 즉 너무 대조의 개념으로 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말인지는 아래의 지문설명을 참고해주세요.

The destructiveness of idealized social media presentation is twofold.

- 이상화된 소셜 미디어의 보여주기의 해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When people read the glowing status updates of others, they are likely to feel worse about their own flawed lives, especially if they are the type of people who tend to judge their self-worth in comparison to others.

-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찬란한 상태업데이트를 읽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결함있는 삶에 대해서 더 나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들 (=그렇게 나쁘게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판단하는 경우에 그렇대. 이게 첫 번째 해로움 정도라고 이해 할 수 있겠네.

In addition, when people put forth a version of themselves that is not genuine, they can actually feel bad about themselves. (General)

- 게다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제시할 때, 자신에 대해 안좋게 느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해로움인가봐. 일단 이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아. 내가 뒷북 해설 하나 하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이 계속 전개되거든? 이 문장에 General이라고 표기해놓을게, 아래의 실험에 대한 예시는 앞에 있는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Specific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

(Specific) In one study, some college students had to pretend to understand made-up words (e.g., besionary) to complete a test, while others did not. Afterward, both groups were praised for their performance.

- 한 연구에서, 일부 대학생들은 시험을 마치기 위해서, 꾸며낸 단어 (그러니까 없는 단어 말하는거야, 여기서는 besionary 라는 이상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네)를 이해하는 것처럼 가장했어야 했고, 다른 집단은 그렇지 않았대. 실험에서 대조군이 등장했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그룹 (꾸며낸 것을 이해해야만 했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던 두집단)은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대.
- 앵? 근데 그런 생각 안들어? 여기서 besionary 같은 만들어낸 단어는 왜 나오는거고, 그리고 단어를 이해하고 말고, 뭐 칭찬받고 말고 이런것들이 왜나오는거지? 그래, 절대 중심을 잃어선 안되는 것은, 이 실험에 대한 맥락이 'SNS 상에서의 사람들의 심리'의 맥락속에서 등장했고, 그리고 그 앞문장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제시할 때 자신에 대해 안좋게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만들어 낸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바로 앞문장에서 대응시켜 찾아보면 '진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게 '글은 무조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니' 유기적으로 맥락을 받아들이며 독해를 해야만 해.

The praise raised the self-esteem of those who did not have to fake understanding of nonwords, but lowered the self-esteem of the students who pretended to understand them.

- 그 칭찬은 단어가 아닌것에 대해서 아는척 할 필요가 없었던 친구들의 자존감은 높였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척 했던 사람들의 자존감은 낮췄대. 이 결과를 읽으면 이 실험이 왜 나왔는지 알겠지? '진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제시할 때 자신에 대해 실제로 좋지 않게 느낀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거야!
- 근데, 잠시만! 내가 이 부분의 문장을 좀 쪼개볼게. A에 해당하는 것을 '거짓된 이해를 보여주는 것, 자신이 아닌 것'으로 잡고, B를 '자존감'으로 낮다라고 잡으면 이 글에서는 이 내용을 보여주는 문장이 총 세 문장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1) when people put forth a version of themselves that is not genuine(=A), they can actually feel bad about themselves. (=B)

(2) The praise raised the self-esteem of those who did not have to fake understanding of nonwords, // but lowered the self-esteem of the students(=B) who pretended to understand them. (=A)

(3) In other words, when people portray their life as better than it actually is on social media(=A), all of the "likes" they get for their status updates and pictures may actually make them feel worse about themselves.(=B)

- 이렇게 대응이 되는거라는 거 느꼈어? 그래서 3번 문장에 (=A)라고 표기된 파란색 부분이 EBS 원 문제에서의 빈칸의 정답이었어. 이정도 문제면 아주 좋은 문제라고 할 수있고, 여러 가지 말바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바꿈이 어떻게 살짝 바뀌는지, 결국 '그 3문장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음.. 이거였지' 이게 아니라, '이게 여기, 이게 여기니까. 딱 정답은 이거네'라고 풀어야하는거야. 빈칸추론은 그렇게 풀어야지만 틀리지 않아!

어쨌든, 이 지문은 아주 맥락적으로 말을 잘 바꾸어가며 세련되게 잘 쓴 글이니까 충분히 출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출제가 안된다 할지라도 꼭 저러한 이해하는 방식들을 체화 시켜놓자! 그러면 비연계도 연계고 나눠서 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단어] destructiveness 해로움 idealize 이상화하다 presentation 공개, 제시 glowing 찬란한, 찬사로 가득한 status update 상태 업데이트 flawed 결함 있는 self-worth 자존감 in comparison to ~와 비교해서 put forth ~을 제시하다 genuine 진짜인 pretend to ~인 척하다 made-up 꾸며낸 performance 수행, 성과 self-esteem 자존감 fake ~인 척하다 non word 존재하지 않는 단어

[Comment] 이 지문 역시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 같은말 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글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맥락을 못잡고 계속 읽어내려가기만 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 글을 정확히 꼼꼼히 잘 읽어주세요.

A quality of the human brain is known as induction, how something positive generates a contrasting negative image in our mind. This is most obvious in our visual system.

- 인간 두뇌의 한 가지 특징은 ‘유도’, 즉 긍정적인 어떤 것이 그와 대조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건 우리 시각체계에서 가장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네. 사실 이 글은 이 첫문장에 대해서 다 끝난거야. 같은 말 밖에 하지 않아, 결국 두뇌는 ‘긍정적인 어떤 것 과 대조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다’ 라는 내용이야.

When we see some color — red or black, for instance — it tends to intensify our perception of the opposite color around us, in this case, green or white. As we look at the red object, we often can see a green halo forming around it.

- 마지막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네. 시각 체계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야. 우리가 빨간 색이 나 검은색을 볼 때, 우리는 그것과 반대되는 색깔에 대한 우리의 인지를 강화시킨대. 만약 우리가 붉은 물체를 본다면 우리는 녹색 후광이 주변에 형성되는걸 볼 수 있대. 즉 이것 역시 ‘Contrast’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거지.

In general, the mind operates by contrasts. We are able to formulate concepts about something by becoming aware of its opposite. The brain is continually dredging up these contrasts. [구문] What this means is that whenever we see or imagine something, our minds cannot help but see or imagine the opposite.

-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대조되는 것들에 의해 작동한대.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그것의 정반대인 것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형성할 수 있대. 이게 의미하는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상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정반대인 것을 보거나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래. 결국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거지. Contrast.

If we are forbidden by our culture to think a particular thought or entertain a particular desire, that taboo instantly brings to mind the very thing we are forbidden. Every no sparks a corresponding yes. We cannot control this vacillation in the mind between contrasts. This predisposes us to think about and then desire exactly what we do not have.

- taboo라는 단어는 금기라는 단어 이므로 꼭 외워야하는 단어야!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문화가 특정한 생각을 하거나 욕망을 품지 못하게 금지하면, 그 금기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한 대. ‘모든 금지는 (Every no) 그에 상응하는 허용 (sparks a corresponding yes)를 촉발한대. 우리는 마음속에서 대조적인 것사이의 이런 동요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서 ‘가지지 않은 것’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갈망하게 한 대.
- 애도 다 생각해보면 같은 말이야. Taboo, 즉 금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반대의 것’의 생각을 해보게 되고, 즉 금기를 깨뜨리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갈망하게 한대라는 거지. 다 ‘Contrast’에 대한 이야기이고 첫 문장에서 했던 이야기야. 글 전체가 같은 말로 도배!

* halo 후광 ** dredge up ~을 떠올리다 *** vacillation 동요, 흔들림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구문] What this means is that whenever we see or imagine something, our minds cannot help but see or imagine the opposite.

- cannot help but (to)-v 은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의미를 모르면 해석이 깨지므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만 한다.

[단어] induction 유도 generate 만들다 contrasting 대조적인 obvious 분명한 intensify 강화하다 perception 인식 formulate 형성하다 concept 개념 entertain (생각·희망·감정 등을) 품다

[Comment] 이 지문은 사실 그냥 그런 지문인 것 같아요. 빨라니까 포인트가 보이고, 넣으려니까 안나올 것 같은.. 그렇다고 넘어가면? 당신은 이 자료를 '무당'의 자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당같은 것은 좀 많이 안믿어서요..;; 해석연습 / 이해연습을 위해 서라도 그냥 읽어보도록 해요.

The bottlenose dolphin is second only to humans in the ratio of brain size to body size, and dolphins apparently outdo humans in some cooperative games.

- 병코돌고래는 몸 크기에 대한 뇌 크기의 비율에서 인간에 버금가고, 몇몇 협동적 게임에서의 능력은 인간을 능가하는 것 같대.

The discussions of cartels and the prisoner's dilemma convey the value and difficulty of cooperation among players when there is an incentive to cheat. Individual cartel members undermine cooperative strategies by selling more than they should, hoping nobody will notice. [구문] Firms that can't cooperate on pricing or environmental strategies end up taking actions with inferior outcomes.

- 그러면서 카르텔과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논하는 것은 속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때, 참가자들 사이에서 협동의 가치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래. 개개의 카르텔은 각자가 팔아야할 것으로 약속한 분량보다 더 많이 팔기 시작함으로써 협동 전략을 약화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격 책정이나 환경 전략에서 협동할 수 없는 회사들은 결국 질이 낮은 결과를 얻는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다시 말해 카르텔이나 죄수의 딜레마가 왜 어떤 점에서 힘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거지.

Dolphins face similar dilemmas. When eating from a school of fish, dolphins encircle the fish and take turns eating, one dolphin at a time.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circling dolphins to cheat by eating while on duty.

- 돌고래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한다. 인간 얘기에서 돌고래 내용으로 넘어왔네. 돌고래가 원을 그리며 도는 돌고래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먹이를 잡아먹음으로써 속이려는 동기가 있대. 즉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속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지.

However, if a significant number of dolphins followed that incentive, the fish would disperse and the benefits from coordination would be lost. In reality, the trustworthiness of on-duty dolphins prevails to benefit all of dolphin society.

- 하지만 대다수의 돌고래들이 자신의 잇속을 차리는 그러한 동기를 따르면, 물고기는 곧 흩어질 것이고, 조직화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사라질거래. 실제로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고래의 신뢰성이 우세하여 돌고래 사회 모두에게 이득이 된대. 즉 돌고래 사이의 신뢰가 잘 지켜지는거지.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구문] Firms that can't cooperate on pricing or environmental strategies **end up taking actions** with inferior outcomes.

- end up ~ing는 결국 ~하게 되다라는 으로 해석 되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단어] bottlenose dolphin 병코돌고래, 큰돌고래 second only to ~에 버금가는 ratio 비율 apparently ~인 듯하게, 겉으로 보기에 ~이게 outdo 능가하다 convey 전하다, 전달하다 incentive 동기, 유인, 자극 cheat 속이다, 사취하다 undermine 서서히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inferior 질이 낮은, 열등한 outcome 결과 school (물고기) 떼 encircle 에워[둘러]싸다 take turns 교대로 ~하다 disperse 흩어지다, 해산하다 coordination 조직화 prevail 우세하다, 유행하다

[Comment] 이 글은 조금 쉽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특히 ‘영어, 그냥 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왔던 상식에 기댔을 때 이해가 되는 글들만 풀어왔던 친구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문에서 내 눈 앞에 뿌려진 커피콩들 사이에서 네모 모양을 찾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렇지만 어쩔수 없지요! 문제에서, 지문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As my colleague Richard Gregory has argued, illusions like the missing-square pattern reveal that the mind is not lazy.

- 내 동료 Richard Gregory가 이야기 했듯이, 사라진 사각형 무늬와 같은 착각은 마음이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 시블 무슨소리여? 해도 정상! ‘사라진 사각형 무늬’가 뭐고, 그런 착각은 왜 마음이 게으르지 않는다는걸 나타내는건가?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밑에서 구체화되면 그것들을 계속 연결하면서 이해할 버릇 들이면 돼!

Our minds are actively trying to make sense of the world by thinking of the best explanation.

- 우리 마음은 가장 나은 설명을 생각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의 문장과 무슨 관련일까? 나는 솔직히 아직 이해는 안되는 것 같아. 일단 뭐, 우리 마음은 열심히 세상을 이해하려고 가장 최선의 설명을 찾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보도록 하자.

For example, if someone took a handful of coffee beans and scattered them across a table in front of you, you would immediately see patterns. Some beans would instantly cluster together into groups as you simply looked at the array.

- 그래 근데, 그렇게 나가서 예시에서 짤~하고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지만, 이 글쓴이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누군가가 커피 콩을 니 테이블에 한 움큼 쥐어서 던지면, 너는 거기서 ‘패턴들’을 보게 될거래. (?? 나는 이새끼가 왜 커피콩을 던지나.. 라고 생각 할 것 같은데 하). 이런 글은 사실 글의 서술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보편적이지 않은 생각들에 기대고 있으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아, 커피콩을 뿌리면 우리는 거기서 ‘패턴’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 그렇지만, 이 문장은 ‘예시’야. 다시 말해 앞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글쓴이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쓰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상식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연결을 해내야만 해.
- 이 문장은 결국 우리가 첫 문장에서 ‘사라진 사각형의 패턴과 같은 환상’은 우리 마음이 게으르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늘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한다는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예시에 나와있듯이 그냥 흩뿌려진 커피콩 들 사이에서도 ‘패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성실함이라는 것이지. 사라진 사각형의 패턴과 같은 환상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든 모든 것에서 패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거구. 무슨말인지 조금은 이해돼? 그 뒷 문장, 배열을 볼 때 일부의 콩들이 모여 집단을 이룬다라는 말도 결국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라고 읽으면 되는거야.

Have you ever watched the clouds on a summer's day turn into faces and animals? You can't stop yourself because your mind has evolved to organize and see structure.

- 여름날의 구름이 얼굴과 동물로 변하는걸 본적이 있냐고 묻고 있어. 이거 역시 왜 이따구로 묻는거지? 그래, 마음이 결국 부단하게 패턴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첫 문장에 대한 계속 연장선상인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첫 문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야 조금은 정상인의 화법으로 내놓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자면, '우리의 마음은 구조를 구성하고 보도록 진화해왔으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멈출 수 없대'. 이게 조금은 달라보이지만 결국 어떤 내용과 같은 말이야?

As my colleague Richard Gregory has argued, illusions like the missing-square pattern reveal that the mind is not lazy.

- 바로 이 첫문장과 내용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리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 떠드는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수능 문제로 만들어 졌다라는 것은 지문 내에서 반복, 유기적 연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어야만 해!

[구문] The ease with which we see faces in particular has led to the idea that we are inclined to see supernatural characters at the drop of a hat. Each year some bagel, muffin, burnt toast, potato chip, or even ultrasound of a fetus showing the face of some deity is paraded as evidence for divine miracles.

- 마지막 문장까지도 여전히 추상적이지만, 이것도 결국 '마음이 패턴을 보려고 하는 것' 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 해석하자면, 우리는 특히 얼굴을 쉽게 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인 인물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신의 얼굴 보여주는 베이글, 머핀, 탄 토스트, 감자칩, 태아의 초음파가 신의 대한 증거로 제시된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사람 얼굴이 있으면 이게 신이다.. 우와 신기하다 뭐 그런 패턴들을 빵속에서 본다.. 뭐 그런 내용...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구문] The ease with which we see faces in particular has led to the idea that we are inclined to see supernatural characters at the drop of a hat.

- 전치사+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는 해석해야만 한다. 그리고 A lead to B는 A가 B로 이어지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또한 be inclined to-v는 ~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해석한다.

[단어] colleague 동료 illusion 착각, 환상 reveal 나타내다. 드러내다 make sense of ~을 이해하다 scatter 뿌리다, 흩뜨려 놓다 cluster 모이다, 무리를 이루다 array 배열, 정렬 evolve 진화하다, 점진적으로 변하다 inclined 경향을 보이는 at the drop of a hat 즉각, 주저하지 않고, ultrasound 초음파, divine 신의. 신성한

[Comment] 이 글 역시 앞전에 읽었던 지문처럼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무슨말이지? 하는 부분들이 여러번 나오는데요, 결국 방법은 없습니다. 우직하게 읽고 유기적으로 이으면서 계속 이해하는 수 밖에요!

As the ancient skeptics taught, contentment is possible without the need to cling to comforting beliefs. As proof, we have the example of David Hume, who lived an entirely admirable life without any belief in the supernatural.

- 고대의 회의론자들이 가르쳤듯이, 만족은 위로가 되는 믿음에 매달리지 않아도 가능하대. 이게 일단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문장만 읽고 머리를 굴리는 것 보다는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그 내용들에 맞춰서 이해를 하는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니까 정확히 해석했으면 넘어가보자.
-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을 보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음 없이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던 흠의 사례를 들 수 있대. 그러면 앞으로 나오게 될 흠의 사례는 바로 '만족이 위로가 되는 믿음 없이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서 위로가 되는 믿음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은 무언가를 믿는 대상일 테니까, 흠의 사례에 있어서는 any belief in the supernatural 이 comfoting beliefs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읽어보자!

[구문] His personal example shows that nobody need feel gloomy because life has no ultimate purpose, or because conventional conceptions of moral responsibility are built on foundations of sand.

- 그의 개인적 사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궁극적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편적인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모래에 기초위에 세워져있다고 해서 우울하게 느낄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대. 이게 결국 무슨 말이나면, 우울하지 않게 느끼는 것은 '만족'에 해당할 것이고, 그 만족이 결국엔 '위로가 되는 믿음'이 없어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말이, 삶이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편적 도덕적 책임의 개념은 그저 모래 위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 즉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 삶의 목적, 보편적인 도덕적 책임의 개념' 같은 것들은 모두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거라고 말 할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재진술이 어려운데 이해돼? 이해안되면 언제나 시그니처한테 질문 고고고)

So what if our fine feelings and intellectual achievements are just the stretching and turning of so many springs or wheels, or our value systems are mirrored by those of chimpanzees and baboons.

- 그래서, 우리의 섬세한 감정과 지적 성취가 단지 너무 많은 스프링이나 바퀴의 신축과 회전이라 할 뿐이라도, 혹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침팬지와 개코원숭이의 가치 체계와 흡사한들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삶의 목적, 보편적 도덕적 책임의 개념 같은 것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한것이라고 왜 믿고 살아가야하냐고 묻고 있는거지. 그러한 개념들이 침팬지랑 다름이 없다, 아님 개코원숭이와 다름없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나고 이야기하고 있는거지. 왜냐하면 그런 것 없이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Our feelings are no less fine, and our values no less precious because the stories we have traditionally told ourselves about why we hold them turn out to be fables.

-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가치관을 유지하는 이유로(=why we hold them), 우리 스스로에 전통적으로 말해왔던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판명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덜 섬세한 것도 아니고, 가치관이 덜 소중한 것도 아니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예를 들자면 우리의 가치 체계는 침팬지, 개코원숭이와는 다르고 우리는 합리적이고 더 똑똑한 존재야! 이러한 믿음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들, 가치관 그 자체가 소중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거야. 즉 우리의 감정이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만족’으로 본다면, 그것에 ‘이유’는 필요 없다라는거지. 그게 바로 위로가 되는 믿음에 매달리지 않아도 가능한 만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거야. 이제 글이 좀 이해돼?

In discarding the metaphysical baggage with which the human race bolstered its youthful sense of self-importance, Hume taught us that we throw away nothing but a set of intellectual chains.

- 흠은 우리에게 인류가 그 어린 자존감을 지지했던 형이상학적 낡은 생각을 버릴 때,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잠시 Stop! 어린 자존감을 지지했던 형이상학적 낡은 생각? 그게 뭐겠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치체계가 침팬지나 개코원숭이보다 낫다 라는 그러한 믿음들을 의미하는거지, 즉 ‘위로가 되는 믿음’ = ‘인류가 어린 자존감을 지지했던 형이상학적 낡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버릴때! 우리는 한낱 일련의 지적 사슬에 불과한 것을 버린다고 가르쳤대. 일련의 지적 사슬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로가 되는 믿음, 인류가 어린 자존감을 지지했던 형이상학적 낡은 생각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있는거지! 결국 어렵고 추상적인 글처럼 보였지만 다 같은말을 반복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구문] His personal example shows that nobody need feel gloomy because life has no ultimate purpose, or because conventional conceptions of moral responsibility are built on foundations of sand.

- 이 경우 need는 일반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로 사용되었다고 봐야하고, 그런 경우 당연히 nee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feel처럼 동사원형의 형태로 오게 된다.

[단어] skeptic 회의론자 contentment 만족, 자족 cling to ~에 매달리다 comforting 위로가 되는 admirable 존경스러운, 감탄할 만한 the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존재[현상/것] ultimate 궁극적인 conventional 전통적인, 인습적인 stretching 신축, 늘어남 be mirrored by ~와 유사하다 baboon 개코원숭이, 비비 fable 꾸며낸 이야기, 우화 baggage 낡은 생각[인습], 짐 self-importance 자존, 자만 nothing but ~에 불과한, 그저 ~일 뿐인 intellectual 지적인

[Comment] 막 그렇게까지 우와 어렵다 하는 지문은 아니네요. 그냥 지문의 맥락과 내용의 이해를 잘 쫓아 가면 되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There have been vigorous arguments among biologists about whether complicated goal-directed behaviour among higher mammals is reliable evidence for their consciousness. Indeed the admission of consciousness into animal research is quite a recent phenomenon.

-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고등 포유동물들 사이의 복잡한 목표 지향적 행동이 그것들이 의식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인지 활발한 논쟁이 있었다. 사실 동물 연구에서 의식을 인정 하는 것은 꽤 최근의 현상이래.

Injury-avoidance behaviour is often based on reflexes, and it is not completely obvious that the inner sensation of pain must be attached to it.

- 부상-회피 행동은 흔히들 반사작용에 근거하며, 통증이라는 내적 감각이 틀림없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는 확실하지 않다. 즉 통증이라는 것이 반사작용의 일환인가? 라는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지.

Even in our own case pain is often felt only after the limb has been moved away. Again, many birds build sophisticated nests entirely instinctively, and may or may not be conscious of what they are doing.

- 그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경우에, 통증은 흔히 팔다리가 잘린 '후'에 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즉 반사작용의 일환이라면 바로 나타나야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거지. 그러면서 의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전개하며,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새는 본능적으로 정교한 둥지를 짓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의식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대.

At the other end of the animal kingdom octopuses and squid have entirely different brain anatomies from ourselves and our common ancestor probably had no brains at all.

- 동물 세계의 다른 쪽 끝의 문어와 오징어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공통된 조상은 아마도 뇌가 전혀 없었을 거래.

Nevertheless they are capable of learning and memorizing facts for months. If they are to be included in the realm of conscious beings, [this indicates that consciousness does not depend upon a particular type of brain anatomy.](#)

- 그럼에도, 그들은 '의식'의 행동인 학습하고, 사실을 암기하고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 색칠되어있는 부분처럼, 특정한 유형의 뇌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의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걸 보여주는거지. 무슨 말이나면, 결국 의식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게 의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거야.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단어] vigorous 활발한, 원기 왕성한 reliable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admission 인정, 허용 phenomenon 현상 avoidance 회피 reflex 반사작용, 반사행동 obvious 확실한, 명백한 sensation 감각, 지각 attach 연관 짓다, 붙이다 limb 팔다리, 큰 가지 sophisticated 정교한, 고도로 세련된 entirely 완전, 전적으로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realm 영역, 부분 integration 통합 anatomy 해부학적 구조, 해부학

[Comment] 지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만한 지문인 것 같습니다. 넵넵. 딱 그정도 인 것 같습니다.

Much prosocial behavior is stimulated by others, such as when someone acts more properly because other people are watching. Dogs will stay off the furniture and out of the trash when their owners are present, but they casually break those rules when alone. Humans may have more of a conscience, but they also still respond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others.

- 많은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극을 반대, 가령 언제 그렇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대. 개들은 주인이 있을 때에는 규칙을 지키지만, 없을 때는 안지키고, 사람들 역시 더 많은 양심을 가질지는 몰라도,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존재나 부재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첫 문장에 대한 내용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거지. 어렵지 않아.

Public circumstances generally promote prosocial behavior. Participants in a study by Kay L. Satow sat alone in a room and followed tape-recorded instructions. Half believed that they were being observed via a one-way mirror (public condition), whereas others believed that no one was watching (private condition)

- - 공개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친사회적은 행동을 촉진한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욱 더 사회적으로 바른 일들을 한다라는거지. 실험의 내용을 보자면, 참가자들은 방에 혼자있어서 테이프에 녹음된 지시를 따랐대. 절반은 한쪽 방향에서만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 관찰 되었고 (그리고 이건 공개적인 상황 - Public condition이라고 설명하고 있네), 반면 절반은 그렇지 않았대.

At the end of the study, the tape-recorded instructions invited the participant to make a donation by leaving some change in the jar on the table.

-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녹음된 지시로 테이블 위에 놓인 주머니가 넓은 병에 약간의 잔돈을 남겨놓음으로써 기부를 하도록 참가자에게 요청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기부'로 바라보고 있는거라는걸 알 수 있겠네.**

The results showed that donations were seven times higher in the public condition than in the private condition. Apparently, one important reason for generous helping is to make (or sustain) a good impression on the people who are watching.

- 실험 결과는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도보다 공개적인 상황에서 기부금이 7배 많았다고 해. 역시 이건 첫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열린 상황에서 더 많은 친 사회적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 실험내용을 마무리로 글이 끝나고 있어!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단어] stimulate 자극하다 trash 쓰레기 conscience 양심 via ~을 통해 one-way mirror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 donation 기부(금) jar 주둥이가 넓은 병, 단지 apparently ~인 듯하게, 겉으로 보기에 ~이게 generous 너그러운 * prosocial 친사회적인

[Comment] 이해하기 쉬운 예시들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흐름과 맥락만 놓친다면 크게 놓칠 부분이 없습니다. 지문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Say you're driving down the interstate at sixty-five miles an hour with three friends from out of town, and you suddenly say to them, "Hey, there's that amazing Pink House!" What happens?

- 고속도로를 세명의 친구들이 달리면서 "야! 저기 Pink house"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뭘일이 일어나냐?

Probably there's a lot of sudden head swiveling, and someone's elbow ends up in someone else's ribs, and maybe one of your friends gets a glimpse, **but probably nobody really gets a chance to see it (and somebody might not believe you if she didn't see it for herself).**

- 뭘일이 일어나냐면, '아마도 많은 갑작스러운 고개돌림 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팔꿈치가 누군가의 갈비뼈를 찌르게 되고, 아마도 친구중 한명은 그것을 언뜻 볼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실제로 그것을 볼 기회를 얻지못할 것이다.' - 차안에 개판되고 아무도 못본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심지어 못본놈들은 여러분 말 안믿을꺼래요. 그렇구나!

What if you had said instead, "Hey, coming up on the right here in about two miles, there's an amazing huge neon Pink House: watch for it"?

- 그러면서, 만약 대신 네가 "야, 저기 2마일 내외로 오른쪽에 엄청나게 큰 'Pink House'라는 네온이 있을 거야, 볼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보래.

They'd be ready, they'd know where to look and what to look for, and they'd see what you wanted them to see. Writers need to advise their readers in a similar way.

- 그들은 준비되어있을꺼래, 그리고 그들은 어딜 봐야하는지, 무엇을 봐야하는지 알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네가 그들이 보길 원한 것을 볼꺼래. 그러니까 아까와는 달리 미리 얘기해주면 그렇게 볼 준비가 된다는거지. 그리고 그게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조언을 할 필요가 있대.

That advice doesn't always need to be in a thesis statement or a topic sentence, but it does need to happen regularly so that readers don't miss something crucial.

- 그 조언은 항상 주제 서술문, 즉 주제문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아까처럼 언급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대라는거지! 글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듯!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단어] interstate 주간[주와 주 사이의]고속도로 elbow 팔꿈치 rib 갈비뼈 glimpse 언뜻 봄, 잠깐 봄 neon 네온 빛의 thesis statement 주제 서술문, 주제문 regularly 자주, 정기적으로 swivel (고개를) 획 돌리다

[Comment] 크게 많이 어렵거나 한 지문은 아니고, 지문에 내용 잘 이해하고 파악하면 될 것 같다.

Indeed, one of the most problematic aspects of global warm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policy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phenomenon has so far manifested itself very unevenly around the world.

-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의 가장 문제되는 측면중 하나는 뭐냐면, 그 현상이 이제까지 세계에서 고르지 않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래.

Some places have had little warming in the past century, and some have even experienced cooling. “For extensive regions of the Earth, the warming of the past 80 years has deviated strongly from the global average,” notes climate expert Ken Hare.

- 몇몇 지역은 지난 세기 동안 온난화가 거의 없었고, 어떤 곳은 기온 저하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구의 광범위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80년동안 온난화는 지구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 지역별로 온난화가 다른 모습을 앞문장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있었다라는 말은 그리고, 결국 기준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겠지.

“This fact raises major difficulties for political action: in many countries, future temperatures will differ strongly from the global norm and global warming will seem like a fiction to local politicians.”

-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사실들은 정치적 행위에 중대한 어려움을 만든데. 많은 나라들에서 미래 기온들은 세계의 기준과 다를 것이고 지구 온난화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허구로 보일거래. 그러니까 다 다르게 나타나고, 일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실존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거지.

He points out, for example, that the lack of a strong warming trend in the United States accounted in part for the reluctance of the U.S. government to support the 199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강력한 온난화 추세가 부재는 92년도 기후변화 국제 협약 지지를 꺼리게 한것의 부분적 이유가 되었던. 그러니까 이 예시는 실제로 그러한 생각들이 정치적 행위(국제 기후협약)에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거지.

“If you’re considering political action, you have to remember that you’re asking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to take on faith that this is a truly global effect,” he said.

-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치적 행동을 할때는 이것이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네.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단어]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aspect 측면 stem from ~에서 기인하다 phenomenon 현상 extensive 광범위한 region 지역 deviate 벗어나다 average 평균 norm 기준 fiction 허구, 꾸민 이야기 reluctance 꺼림, 마음이 내키지 않음 convention 협약, 조약

[Comment] 첫 문장이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In the fifth century B.C.E. , the Greek philosopher Protagoras pronounced,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In other words, we feel entitled to ask the world, “What good are you?”

-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너는 뭘 잘하니? 어떤 쓸모가 있니?라고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느낀대. 왜냐하면 우리가 만물의 척도니까!

We assume that we are the world’s standard, that all things should be compared to us. Such an assumption makes us overlook a lot. Abilities said to “make us human” — empathy, communication, grief, toolmaking, and so on — all exist to varying degrees among other minds sharing the world with us.

-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모든게 우리와 비교되어야한다고 생각한대. 그런 가정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해지는 능력들, 가령 공감, 의사소통, 슬픔, 도구 만들기 등은 우리와 세상을 공유하는 다른 지력을 지닌 존재들에게도 다양한 정도로 존재한대.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은 온전히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거지!**

Animals with backbones (fishes, amphibians, reptiles, birds, and mammals) all share the same basic skeleton, organs, nervous systems, hormones, and behaviors.

- 척추동물들은 모두 동일한 기본 골격, 장기, 신경계, 호르몬, 행동을 공유한대. **아까 앞 문장부터 인간의 특수함보다는 공통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Just as different models of automobiles each have an engine, drive train, four wheels, doors, and seats, we differ mainly in terms of our outside contours and a few internal tweaks. But like naive car buyers, most people see only animals’ varied exteriors.

- 다양한 자동차 모델들이 각각 차 구성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로 우리 외부 윤곽과 몇가지 내부적인 것들만 다르네. **그러니까 인간과 척추동물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거지. 근데 순진한 차 구매자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들의 다양한 겉모습만 본대. 즉 차이점에만 집중한다는거지.**

● WORDS & SENTENCES 단어와 구문에 대하여

[단어] pronounce 선언하다 measure 척도 entitled to ~할 자격이 있는 standard 기준, 표준 overlook 간과하다 empathy 공감 grief 슬픔 backbone 척추, 등뼈 amphibian 양서류 reptile 파충류 mammal 포유류 skeleton 골격 organ 장기 nervous system 신경계 drive train 동력 전달 체계 contour 윤곽 naive 순진한 exterior 겉모습 * tweak 변경, 수정

02 완벽한 문제해결력을 키워봅시다. PROBLEM-SOLVING

01

다음 글에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강 1번 지문]

It will never be possible to establish the origins of human music with any certainty; however, it seems probable that music developed from the prosodic exchanges between mother and infant which foster the bond between them. From this, it became a form of communication between adult human beings. ① As the capacity for speech and conceptual thought developed, music became less important as a way of conveying information, but retained its significance as a way of communicating feelings and cementing bonds between individuals, especially in group situations. ② Today, we are so accustomed to considering the response of the individual to music that we are liable to forget that, for most of its history, music has been predominantly a group activity. ③ The response of the individual to music is inherently personal and it has innate limitations that others and I cannot share with each other. ④ Music began by serving communal purposes, of which religious ritual and warfare are two examples. ⑤ It has continued to be used as an accompaniment to collective activities; as an adjunct to social ceremonies and public occasions.

02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강 4번 지문]

Ethics itself is not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description of the moral systems of different societies.

(A) Nevertheless, ethics must take note of the variations in moral systems, because it has often been claimed that this variety shows that morality is simply a matter of what is customary and that it thus is always relative to particular societies.

(B) That task, which remains on the level of description, is one for anthropology or sociology. In contrast, ethics deals with the justification of moral principles (or with the impossibility of such a justification).

(C) According to this view, no moral principle can be valid except in the societies in which it is held. Words such as *good* and *bad* just mean, it is claimed, "approved in my society" or "disapproved in my society," and so to search for an objective, or rationally justifiable, ethics is to search for what is, in fact, an illusion.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03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강 5번 지문]

The praise raised the self-esteem of those who did not have to fake understanding of nonwords, but lowered the self-esteem of the students who pretended to understand them.

The destructiveness of idealized social media presentation is twofold. (①) When people read the glowing status updates of others, they are likely to feel worse about their own flawed lives, especially if they are the type of people who tend to judge their self-worth in comparison to others. (②) In addition, when people put forth a version of themselves that is not genuine, they can actually feel bad about themselves. (③) In one study, some college students had to pretend to understand made-up words (e.g., besionary) to complete a test, while others did not. (④) Afterward, both groups were praised for their performance. (⑤) In other words, when people portray their life as better than it actually is on social media, all of the “likes” they get for their status updates and pictures may actually make them feel worse about themselves.

0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강 6번 지문]

A quality of the human brain is known as induction, how something positive generates a contrasting negative image in our mind. This is most obvious in our visual system. When we see some color — red or black, for instance — it tends to ① intensify our perception of the opposite color around us, in this case, green or white. As we look at the red object, we often can see a green halo forming around it. In general, the mind operates by contrasts. We are able to ② formulate concepts about something by becoming aware of its opposite. The brain is continually dredging up these contrasts. What this means is that whenever we see or imagine something, our minds cannot help but see or imagine the ③ same. If we are forbidden by our culture to think a particular thought or entertain a particular desire, that taboo instantly ④ brings to mind the very thing we are forbidden. Every no sparks a corresponding yes. We cannot ⑤ control this vacillation in the mind between contrasts. This predisposes us to think about and then desire exactly what we do not have.

05

밑줄 친 illusions like the missing-square pattern reveal that the mind is not laz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강 8번 지문]

As my colleague Richard Gregory has argued, illusions like the missing-square pattern reveal that the mind is not lazy. Our minds are actively trying to make sense of the world by thinking of the best explanation. For example, if someone took a handful of coffee beans and scattered them across a table in front of you, you would immediately see patterns. Some beans would instantly cluster together into groups as you simply looked at the array. Have you ever watched the clouds on a summer's day turn into faces and animals? You can't stop yourself because your mind has evolved to organize and see structure. The ease with which we see faces in particular has led to the idea that we are inclined to see supernatural characters at the drop of a hat. Each year some bagel, muffin, burnt toast, potato chip, or even ultrasound of a fetus showing the face of some deity is paraded as evidence for divine miracles.

- ① The perception of shape may vary from situation to situation.
- ② The ability to find geometric patterns is something that is learned.
- ③ illusion indicates a state of psychological illness.
- ④ The human mind always tries to find a particular pattern.
- ⑤ Individuals' mathematical learning is constrained by their natural abilities.

06

밑줄 친 contentment is possible without the need to cling to comforting belief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강 9번 지문]

As the ancient skeptics taught, contentment is possible without the need to cling to comforting beliefs. As proof, we have the example of David Hume, who lived an entirely admirable life without any belief in the supernatural. His personal example shows that nobody need feel gloomy because life has no ultimate purpose, or because conventional conceptions of moral responsibility are built on foundations of sand. So what if our fine feelings and intellectual achievements are just the stretching and turning of so many springs or wheels, or our value systems are mirrored by those of chimpanzees and baboons. Our feelings are no less fine, and our values no less precious because the stories we have traditionally told ourselves about why we hold them turn out to be fables. In discarding the metaphysical baggage with which the human race bolstered its youthful sense of self-importance, Hume taught us that we throw away nothing but a set of intellectual chains.

- ① Sentiment is sometimes stronger than reason
- ②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human and animal value systems.
- ③ Beliefs that make human beings special are very important in living a satisfying life.
- ④ We can live contentedly even if we abandon unnecessary metaphysical ideas.
- ⑤ Men are creatures of emotions.

0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장 11번 지문]

There have been vigorous arguments among biologists about whether complicated goal-directed behaviour among higher mammals is reliable evidence for their consciousness. Indeed the admission of consciousness into animal research is quite a recent phenomenon. Injury-avoidance behaviour is often based on reflexes, and it is not completely obvious that the inner sensation of pain must be attached to it.

- (A) Nevertheless they are capable of learning and memorizing facts for months. If they are to be included in the realm of conscious beings, this indicates that consciousness does not depend upon a particular type of brain anatomy.
- (B) At the other end of the animal kingdom octopuses and squid have entirely different brain anatomies from ourselves and our common ancestor probably had no brains at all.
- (C) Even in our own case pain is often felt only after the limb has been moved away. Again, many birds build sophisticated nests entirely instinctively, and may or may not be conscious of what they are doing.

-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0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2장 8번 지문]

Much prosocial behavior is stimulated by others, such as when someone acts more properly because other people are watching. Dogs will stay off the furniture and out of the trash when their owners are present, but they casually break those rules when alone.

- (A) At the end of the study, the tape-recorded instructions invited the participant to make a donation by leaving some change in the jar on the table.
- (B) The results showed that donations were seven times higher in the public condition than in the private condition. Apparently, one important reason for generous helping is to make (or sustain) a good impression on the people who are watching.
- (C) Humans may have more of a conscience, but they also still respond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others. Public circumstances generally promote prosocial behavior. Participants in a study by Kay L. Satow sat alone in a room and followed tape-recorded instructions. Half believed that they were being observed via a one-way mirror (public condition), whereas others believed that no one was watching (private condition).

-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09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2장 9번 지문]

What if you had said instead, “Hey, coming up on the right here in about two miles, there’s an amazing huge neon Pink House: watch for it”?

Say you’re driving down the interstate at sixty-five miles an hour with three friends from out of town, and you suddenly say to them, “Hey, there’s that amazing Pink House!” (①) What happens? (②) Probably there’s a lot of sudden head swiveling, and someone’s elbow ends up in someone else’s ribs, and maybe one of your friends gets a glimpse, but probably nobody really gets a chance to see it (and somebody might not believe you if she didn’t see it for herself!). (③) They’d be ready, they’d know where to look and what to look for, and they’d see what you wanted them to see. (④) Writers need to advise their readers in a similar way. (⑤) That advice doesn’t always need to be in a thesis statement or a topic sentence, but it does need to happen regularly so that readers don’t miss something crucial.

10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2장 11번 지문]

Indeed, one of the most problematic aspects of global warm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policy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phenomenon has so far manifested itself very unevenly around the world.

(A) “This fact raises major difficulties for political action: in many countries, future temperatures will differ strongly from the global norm and global warming will seem like a fiction to local politicians.” He points out, for example, that the lack of a strong warming trend in the United States accounted in part for the reluctance of the U.S. government to support the 199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 Some places have had little warming in the past century, and some have even experienced cooling. “For extensive regions of the Earth, the warming of the past 80 years has deviated strongly from the global average,” notes climate expert Ken Hare.

(C) “If you’re considering political action, you have to remember that you’re asking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to take on faith that this is a truly global effect,” he said.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II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2강 12번 지문]

Just as different models of automobiles each have an engine, drive train, four wheels, doors, and seats, we differ mainly in terms of our outside contours and a few internal tweaks.

In the fifth century B.C.E. , the Greek philosopher Protagoras pronounced,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①) In other words, we feel entitled to ask the world, “What good are you?” (②) We assume that we are the world’s standard, that all things should be compared to us. Such an assumption makes us overlook a lot. (③) Abilities said to “make us human” — empathy, communication, grief, toolmaking, and so on — all exist to varying degrees among other minds sharing the world with us. (④) Animals with backbones (fishes, amphibians, reptiles, birds, and mammals) all share the same basic skeleton, organs, nervous systems, hormones, and behaviors. (⑤) But like naive car buyers, most people see only animals’ varied exteriors.

02

완벽한 문제해결력을 키워봅시다.

PROBLEM-SOLVING

빠른정답

1주차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2강

01	02	03	04	05	06
③	②	⑤	③	④	④

07	08	09	10	11	
⑤	④	③	②	⑤	

03 핵심적 구문과 단어를 제대로 정리합시다.

WORDS & SENTENCES

Words

(1) 1강~2강 EBS 어휘정리

<p>001 cement</p>	<p>강화하다 [v]</p> <p>As the capacity for speech and conceptual thought developed, music became less important as a way of conveying information, but retained its significance as a way of communicating feelings and cementing bonds between individuals, especially in group situations.</p>
<p>002 glowing</p>	<p>찬란한, 찬사로 가득한 [a]</p> <p>When people read the glowing status updates of others, they are likely to feel worse about their own flawed lives, especially if they are the type of people who tend to judge their self-worth in comparison to others.</p>
<p>003 flawed</p>	<p>결함이 있는 [a]</p> <p>When people read the glowing status updates of others, they are likely to feel worse about their own flawed lives, especially if they are the type of people who tend to judge their self-worth in comparison to others.</p>
<p>004 taboo</p>	<p>금기 [n]</p> <p>If we are forbidden by our culture to think a particular thought or entertain a particular desire, that taboo instantly brings to mind the very thing we are forbidden.</p>
<p>005 entertain</p>	<p>(생각, 희망, 감정등을) 품다 [v]</p> <p>If we are forbidden by our culture to think a particular thought or entertain a particular desire, that taboo instantly brings to mind the very thing we are forbidden.</p>
<p>006 ratio</p>	<p>비율 [n]</p> <p>The bottlenose dolphin is second only to humans in the ratio of brain size to body size, and dolphins apparently outdo humans in some cooperative games.</p>

<p>007 cluster</p>	<p>모이다, 무리를 이루다 [v]</p> <hr/> <p>Some beans would instantly cluster together into groups as you simply looked at the array.</p>
<p>008 at the drop of a hat</p>	<p>즉각</p> <hr/> <p>The ease with which we see faces in particular has led to the idea that we are inclined to see supernatural characters at the drop of a hat.</p>
<p>009 contentment</p>	<p>만족 [n]</p> <hr/> <p>As the ancient skeptics taught, contentment is possible without the need to cling to comforting beliefs.</p>
<p>010 cling to</p>	<p>~에 매달리다</p> <hr/> <p>As the ancient skeptics taught, contentment is possible without the need to cling to comforting beliefs.</p>
<p>011 fable</p>	<p>꾸며낸 이야기, 우화 [n]</p> <hr/> <p>Our feelings are no less fine, and our values no less precious because the stories we have traditionally told ourselves about why we hold them turn out to be fables.</p>
<p>012 nothing but</p>	<p>~에 불과한</p> <hr/> <p>Hume taught us that we throw away nothing but a set of intellectual chains.</p>
<p>013 vigorous</p>	<p>활발한, 원기가득한 [a]</p> <hr/> <p>There have been vigorous arguments among biologists about whether complicated goal-directed behaviour among higher mammals is reliable evidence for their consciousness.</p>

<p>014 vigorous</p>	<p>활발한, 원기가득한 [a]</p> <p>There have been vigorous arguments among biologists about whether complicated goal-directed behaviour among higher mammals is reliable evidence for their consciousness.</p>
<p>015 limb</p>	<p>팔다리 [n]</p> <p>Even in our own case pain is often felt only after the limb has been moved away.</p>
<p>016 stimulate</p>	<p>자극하다 [v]</p> <p>Much prosocial behavior is stimulated by others, such as when someone acts more properly because other people are watching.</p>
<p>017 conscience</p>	<p>양심 [n]</p> <p>Humans may have more of a conscience, but they also still respond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others.</p>
<p>018 via</p>	<p>~을 통하여</p> <p>Half believed that they were being observed via a one-way mirror (public condition), whereas others believed that no one was watching (private condition).</p>
<p>019 glimpse</p>	<p>언뜻보다, 흘깃보다 [v]</p> <p>Probably there's a lot of sudden head swiveling, and someone's elbow ends up in someone else's ribs, and maybe one of your friends gets a glimpse, but probably nobody really gets a chance to see it (and somebody might not believe you if she didn't see it for herself!).</p>
<p>020 offense</p>	<p>해, 상해 [n]</p> <p>To my vegetarian friends who argue that it is morally wrong to take sentient life, I answer that they cannot go for a walk in the country without committing that offense,</p>

021 innumerable	셀 수 없는 [a]
	We cannot live without asserting our right to subject the lower forms of life to our purposes; we kill innumerable germs when we swallow a glass of grape juice, or for that matter a glass of plain water.

022 stem from	~에서 기인하다 [v]
	Indeed, one of the most problematic aspects of global warm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policy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phenomenon has so far manifested itself very unevenly around the world.

023 entitled to	~할 자격이 있는
	In other words, we feel entitled to ask the world, “What good are you?”

024 contour	윤곽 [n]
	we differ mainly in terms of our outside contours and a few internal tweaks. But like naive car buyers, most people see only animals’ varied exteriors.

025 school	학파 [n]
	So far as diet is concerned, I belong to no school ; I have learned something from each one, and what I have learned from a trial of them all is to be shy of extreme statements and of hard and fast rules.

001

[영독 01-02]

As odd as this may sound, when you suspect that you have the potential to enhance your teaching, assessment results can help clear up any confusion about where you might begin to make changes.

- (As)+형용사/부사+as+S+V는 양보의 접속사로 해석되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는 ~라고 할지라도 라고 똑같이 마치 Though this may sound odd를 해석하듯이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되는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석을 하는데 큰 장애를 불러일으키므로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원 문장으로 유사문장 연습하기]

As improbable as this may seem, the bodily fluids of aquatic animals show a strong similarity to oceans.

(Trigger 160번)

002

[영독 01-05]

The praise raised the self-esteem of those who did not have to fake understanding of nonwords, but lowered the self-esteem of the students who pretended to understand them.

- those는 that의 복수형태로써의 의미도 있지만,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무작정 그것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을 피하고 조심해야만 한다.

[평가원 문장으로 유사문장 연습하기]

Those drawing were asked to redraw their last picture to demonstrate how quickly they could draw.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003

[영독 01-06]

What this means is that whenever we see or imagine something, our minds cannot help but see or imagine the opposite.

- 보어 자리에 와있는 that절 의 내부 어순이 whenever이라는 부사절이 삽입되어 있어서 어지럽혀져 있다. 이런 경우 어디가 that절의 범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our minds cannot help but~ 부분이 that절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cannot help but (to)-v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의미를 나타낸다.

[평가원 문장으로 유사문장 연습하기]

(1) To develop others, we have to first develop ourselves. And to continuously change others, we can't help but continuously transform ourselves. (Trigger 186번)

(2) It is a fundamental mistake to imagine that when we see the non-value in a value or the untruth in a truth, the value or the truth ceases to exist. (Trigger 280번)

004

[영독 01-08]

The ease with which we see faces in particular has led to the idea that we are inclined to see supernatural characters at the drop of a hat.

- 전치사+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는 해석해야만 한다. 대충 뭉개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전치사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까지 꼼꼼히 해석을 해줘야지만 해석이 쉬워진다. 그리고 lead가 자동사로 쓰이면 이끌다라는 기존의 의미보다는 이어지다 정도의 해석이 자연스럽다.

[평가원 문장으로 유사문장 연습하기]

All human societies have economic systems within which goods and services are produced, distributed, and consumed.

(Trigger 136번)

005

[영독 02-05]

With this form of agency comes the belief that individual successes depend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and thus,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or trying to accept one's circumstances, the use of control ultimately centers on the individual.

- 문두에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고 있다. 동사는 comes이고 주어는 the belief에 해당한다.

[평가원 문장으로 유사문장 연습하기]

At the core of this [lie / lies] the concepts of trust and obligation, which enable individuals to cooperate in groups to solve the problems of survival and successful reproduction in more efficient ways. (Trigger 43번)

04 EBS에서 출제 될 어법을 정복합니다.

GRAMMAR

001

[영독 01-02]

Recognizing that you can make mistakes as a teacher and constantly strive to recover from those failings [is / are] significant.

- 주어가 길어진 문장의 수일치 - 문장의 주어가 관계사, 부정사 등의 수식을 받아 길어졌을 경우 주어가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경우 무작정 동사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평가원 문제로 같은 개념 연습하기]

The precedence of approximations and ratios over exact numbers, Pica suggests, is due to the fact that ratios are much more important for survival in the wild than the ability to count. [O / X] (2019.06)

002

[영독 01-02]

His personal example shows that nobody need feel gloomy because life has no ultimate purpose, or because conventional conceptions of moral responsibility are built on foundations of sand. [O / X]

- 수일치 - 문장에서 nobody가 단수니까 need가 needs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need가 조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needs가 되지 않아도 된다. need가 조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은 그 뒤에 feel이 동사원형으로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03

[영독 02-05]

With this form of agency [coming / comes] the belief that individual successes depend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and thus,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or trying to accept one's circumstances, the use of control ultimately centers on the individual.

- 준동사/본동사 - 문장에서 앞에 있는 말들이 주어라고 생각해서도 안되며, 그 뒤에 문장구조에서 동사가 없다라는 것을 Catch를 해야한다. 뒷 문장구조를 보면 이 문장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자리인 comes가 정답으로 와야한다. 이 경우 주어는 the belief 이다.

[평가원 문제로 같은 개념 연습하기]

Closely related to the debate over readers' conceptions of fictional characters being the question of the nature of the emotions that readers experience. [O / X] (창작)

004

[영독 02-11]

Indeed, one of the most problematic aspects of global warm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policy [stem /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phenomenon has so far manifested itself very unevenly around the world.

- 수일치 - 간단한 수일치이다. 주어가 one 이므로 단수취급 해주면 된다. 다른 수식어구들에 밀릴 필요 없다.

[평가원 문제로 같은 개념 연습하기]

One of the simpl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build empathy in children ① is to let them play more on their own. [2018.03 교육청]

005

[영독 02-11]

He points out, for example, [that / what] the lack of a strong warming trend in the United States accounted in part for the reluctance of the U.S. government to support the 199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that vs what - point out의 목적어 자리에서 that과 what을 묻고 있으므로 문장의 완전구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면 된다. account for라는 의미덩어리 사이에 in part가 삽입되어 완전 불완전구조를 판단하는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삽입어구를 잘 제쳐내도록 하자.

[평가원 문제로 같은 개념 연습하기]

They discovered that people who were given popularity rankings were more likely to select [that / what] the website claimed were favorite choices. [2008.06 평가원]